

시민체감형 주거복지로 삶의 질 개선 ‘착착’

광주시도시공사

광주시도시공사가 올해 주거복지 분야에서 거둔 성과는 단순한 수상 실적을 넘어 ‘주거복지’는 삶의 질을 바꾸는 일이라는 철학을 실질적으로 증명한 결과다.

주거복지 중심 ESG 경영 확산 유공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2년 연속 기관·단체부문 대상,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상 등 총 5관왕을 달성하며 주거복지 정책을 선도하는 대표 공공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살던 집→생활 중심 주거복지 확장

광주도시공사와 광주 광산구가 함께 추진한 ‘살던 집 프로젝트’는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거주지 중심 통합돌봄 모델로 전환시킨 전국 최초의 사례로 평가 받는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집을 단순한 거주 공간에서 의료·돌봄·회복·관계가 연결되는 생활 중심 주거복지 체계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우산빛어울체는 입주 35년이 지난 대규모 영구임대단지로 전체 세대의 78%가 60세 이상, 42%가 장애인인 대표적 고령·취약 밀집 지역이다.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돌봄 체계로는 입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해 ‘익숙한 집에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중간집·케어홈센터…‘돌봄 거점’ 변신

공사는 병원 치료를 마쳤으나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입주민을 위해 회복형 주거공간인 ‘중간집’ 30호를 마련했다. 이어 단지 상가 내 공실을 리모델링해 전문 돌봄 인력이 상주하는 케어홈센터를 구축, 광산구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퇴원환자 회복 지원·일상생활 지원·건강 모니터링 등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우산빛어울체 살던 집의 한 입주민은 오랜 입원 후 마땅한 주거지가 없는 상황에서 중간집으



광주도시공사는 고령층이 밀집한 임대단지에서 보이스피싱, 불법 방문판매, 고가 계약 유도 등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등 총 22개 기관·기업과 협력해 피해 예방 교육,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소비자 권익 증진’ 행사를 열어 호응을 얻었다. 사진 오른쪽은 전문 돌봄 인력이 상주하며 유관기관과 연계해 퇴원환자 회복 지원·일상생활 지원·건강 모니터링 등을 통합 제공하는 케어홈센터. <광주도시공사 제공>

영구임대 ‘살던 집 프로젝트’ 호평

‘통합돌봄’ 공공주택 사회적 역할 ↑

현장 중심 복지로 일상 안정 꾀해

주거 취약층 소비 피해 예방도 힘

고령 중장년 1인가구 사회 연결

보건복지부장관상 등 5관왕 결실

로 이주했고, 케어홈센터의 돌봄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머물며 회복하고 싶다’는 고령층의 욕구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한 대표적 사례다.

◇전국첫 입주절차 혁신…3개월→1주일

살던 집 프로젝트 성공의 결정적 요인은 입주절차 간소화였다. 영구임대 입주는 보통 3개월

이상 소요돼 긴급한 회복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큰 장벽이었다. 공사는 광주 광산구·주거복지센터와 함께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적용해 입주 절차를 혁신했다. 대상 발굴→자격 검증→계약 체결까지 1주일 내 완료하는 체계를 구축, 회복의 골든타임을 살렸다.

◇복합지원 이동상담 ‘만족도 최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정보 접근성이 낮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공사는 유관기관 중심의 개별 상담 방식을 지자체·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복합지원 이동상담으로 발전시켰다. 법률·복지·금융·고용 전문가가 복지 소외 지역(임대주택)을 방문해 상담과 연계를 제공함으로써 입주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동상담의 확대는 곧 변화로 이어졌다. 도움을 체감하는 시민이 크게 늘었고, 일상의 안정으로 확장되고 있다.

◇‘소비 안전’ 생활복지 플랫폼 확장

공사는 고령층이 밀집한 임대단지에서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에도 주목했다. 보이스피싱, 불법 방문판매, 고가 계약 유도 등은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을 위협하는 대표적 위험요인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삼성전자·LG전자·세라젠 등 총 22개 기관·기업과 협력해 소비자 권익 증진 행사를 운영했다.

행사는 가전 무상 점검·수리, 건강 지원, 장수사진 촬영, 스마트폰 활용 교육, 피해 예방 교육 등으로 구성됐으며 1천337명이 참여하고 약 5천 200만원의 경제적 후생효과가 창출됐다. 이번 사업은 주거복지가 소비 안전까지 품는 생활복지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고령 삶 잇는 자조적 공동체 조성

공사는 고독사 실태 분석을 통해 50~60대 남성 1인가구가 가장 높은 위험군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단순한 행사 참여로는 이들의 고립감이 해

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사는 장기적·지속적 관계 기반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명절 장보기, 요리 모임, 문화 체험, 감정 표현 프로그램 등은 참여자들끼리 관계를 이어가고 서로의 안부를 살피는 자조적 돌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이는 사회적 단절을 경험한 중장년 1인가구가 일상 속 역할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장 중심 공공기업…‘안심 주거환경’ 앞장

광주의 주거복지는 집을 제공하는 데에서 회복·안전·자립·관계가 연결된 통합 주거복지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과 성과는 지역은 물론, 국가적 주거복지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 공공기업’으로서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다. /기수회기자

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위’ 출범

서동욱 위원장 “공정배분 안된 구조 문제”

전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위원장으로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을 선출했다.

특위는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개발이익의 과도한 민간 집중 ▲행정절차 투명성 논란 ▲공공성 확보 미흡 문제 등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발이익 환수 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동욱 위원장은 “특위 출범은 지금까지의 개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근본적으로 되짚는 과정”이라며 “개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개발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택지 조성사업 전반의 행정 절차 적

정성 점검 ▲개발이익 산정·환수 타당성 검토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 등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점검 ▲전남형 개발이익 환수 기준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특위에는 서동욱 위원장을 비롯해 김진남 부위원장(순천5), 강정일(광양2)·한춘욱(순천2)·신민호(순천6)·김정희(순천3)·김경이(순천8)·최동익(비례)·정영균(순천1)·한숙경(순천7)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김재정기자

광주시, 2기분 자동차세 230억 부과

광주시는 16일 “올해 2기분(7~12월) 자동차세 19만건에 대해 총 23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일시 납부한 납세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

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시간 제약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광주시는 자동차세를 비롯해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신청일 다음 달부터 고지서 1장 당 500원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두 가지 모두 함께 신청할 경우 최대 1천원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변은진기자

당, 당, 당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까?

- ☑ 효능·효과는 묻지마세요.
- ☑ 식전 2봉지 드시고 체크해보세요.
- ☑ 당일 즉석 떨어집니다.
- ☑ 신비의 약초 천연식품 재료로 제조하였습니다.

[식약처허가 제2019-05191645]

NAVER 네이버 카페 **비그라올라** 검색

1박스-50,000원

달빛고향 흑염소 진액

달빛고향 흑염소 진액은 흑염소부터 다릅니다!

- ☑ 100% 국산 자연방목 흑염소 진액 사용
- ☑ 식물성 재료 원료 배합
- ☑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제조공법
- ☑ 다년간의 노하우를 담아 깊고 깔끔한 맛

1박스-60,000원

내안에 향기를 채우다 이제 뿌리지 말고 드세요!

천연 해조류에서 추출한 수용성 규소를 기반으로 체내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제거합니다

1박스-120,000원

냄새 굿바이를 음용하시면 몸속 냄새의 근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냄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추천!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대화 중 입냄새, 겨드랑이, 발 냄새가 심한 분
- ☑ 갑자기 새어나오는 요실금 증상으로 소변냄새 걱정하신 분
- ☑ 매일 아침, 속편하고 활기찬 하루의 시작을 원하시는 분
- ☑ 대소변 냄새 감소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원하는 곳 (요양원 등)

"본 제품의 효과는 개인의 체질, 사용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텔, 식당, 호프집, 요양원, 유흥주점 살포시 10분안에 냄새 제거! 냄새 악취 완전 제거 확실합니다.

2개월 분 -70,000원

푸른도개비 친환경살균제 특장점

적용대상	고추·양파·배추·무·딸기·포도·대파·모든 농산물
살균력	염소계 제품보다 250%이상의 산화력과 500%이상의 소독 능력
살균지속력	일반적인 살균력은 일시적인데 비해 7일이상 지속적인 살균력 유지
안정성	오존 및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에서 발행하는 소독 부산물이 없음
환경친화력	빛에 의해 쉽고 빠르게 분해되므로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피해가 없음
악취제거	악취 발생 공방이류와 발효 세균 등 분자 파괴로 악취 원인의 근본적 제거
병충해예방	식물로서 탄저병 예방

- 1 유익균에 우호 오염물질과 선택적으로 반응하므로 상대적으로 유익균에 우호적
- 2 중금속 제거 작업현장 수질의 가장 "중금속을 빠르게 산화"시키어 정화함
- 3 가스 제거 환경오염의 원인물질인 "황화수소 및 암모니아 등을 산화"시켜 제거
- 4 악취 근원 제거 단순 냄새 제거를 벗어나 원인 물질의 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
- 5 살균의 지속성 박테리아나 균이 재 번식하는 현상을 억제하고 "내성이 생기지 않음"
- 6 기생충 억제 각종 "기생충들의 성장을 저하"시키고 기피제이므로 억제가 가능함
- 7 고도의 살균력 타사 살균제에 비해 "2.5배 이상 강한 살균력과 5배 이상의 소독력"
- 8 무독성 타 살균제와는 달리 클로로아민·클로로페놀 등 발암물질 생성안됨
- 9 신선도 유지 수확시 청지·살포하는 것으로 수확물의 신선도를 오래도록 지속 가능

총판 및 취급점 모집

대양식품(주)

080-374-5046

CMYK